제 2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을 마치고

제2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용평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산업체·연구소·학계에서 많은 회원들이 대부분 가족과 같이 참석하여 뜻깊은 심포지움이 되었다. 가뭄과 더위로 지친 일상생활을 벗고 시원한 용평에서의 보람찬 시간들이었다.

금년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강좌의 주제는 개방화시대와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고분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국내 고분자 연구자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첫날 오후에는 강윤관 과장(상공부)의 국내 유화업계의 현황과 전망, 김연식 부사장(유공)의 국내 고분자산업의 전망등 국내업계의 현실과 개방화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발표한 잘 준비된 강의였다. 저녁식사는 부페식사를 하였는데 대부분 회원의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회원들과의 친교는 물론, 부인들, 아이들끼리도 즐겁게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품권 시상과 함께 전 어린이 참석자들에게는 학회에서 미리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둘째날에는 손연수 박사(과학기술처)의 국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김광태 소장(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환경라운드와 국내기업의 대응 대책에 대해 강의하였다.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고 개방화시대, 과학기술 정책과 환경대책, 기업의 대응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여 오대산 월정사를 관광하거나 동해안 바닷가에 물놀이를 가는 등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세째날은 한장섭 과장(공진청)의 ISO 9000과 ISO 14000에 대해, 김제완 교수(서울대)의 과학재단 산·학·연 연구협력의 지원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2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의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참가회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편집간사 이영무〉

참가자 명단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안 병 현	KIST	이 광 희	한양대학교	조 창 기
대림산업대덕연구소	강 기 홍	KIST	최 동 훈	회장	한 만 정
미원유화	이 석 현	KIST	홍 재 민	전무이사	임 승 순
액손케미칼	안 병 후	KAIST	김 성 철	총무이사	강 두 환
유공	이 해 성	KAIST	박 오 옥	재무간사	김 정 안
유공	김 동 희	건국대학교	허 정 림	편집간사	이 영 무
유공고분자연구소	조 규 철	경북대학교	김 우 식	편집간사	차 국 헌
코오롱기술연구소	신 문 철	생산기술연구원	이 영 철	조직간사	하 기 룡
코오롱유화	이 종 두	조선대학교	신 용 진	조직간사	공 명 선
KIST	김 영 하	한국화학연구소	최 길 영		
KIST	김 재 진	한국화학연구소	이 재 홍		
KIST	김 창 근	한국화학연구소	김 정 훈		합계 33명